

메시지 6

새 예루살렘을 살아 내고 이루어 냈

성경: 고전 1:30, 계 21:2, 9-11, 18-20, 22:1-2상, 17상

- I. 새 예루살렘의 이상은 시대의 이상이다. 시대의 사역 안에 있는 시대의 이상에 따라 하나님을 살고 섬기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 내고 이루어 내는 것이다—행 26:19, 22:15, 계 21:9-11.
- A. “지난 육십구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후에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나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 나의 이상이요, 나의 계시요, 나의 사역이다.” (섬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49쪽)
 - B.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있는 계시 전체의 총체적인 구성체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엡 2:10, 계 21:2.
 - C. 각 지방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형이어야 하며 각 믿는 이는 ‘작은 새 예루살렘’ 이어야 한다. 새 예루살렘에 속한 것은 모두 우리의 단체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야 한다—참조 계 22:1-2상.
 - D. 새 예루살렘을 살아 내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며,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내는 것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다—계 19:7, 고전 3:12상.
- II.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살아 내고 이루어 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표현을 위해 무지개, 즉 은혜의 새 언약의 실재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으로 완결될 것이다—계 21:18-20, 갈 4:26-28, 31.
- A.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과 그분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는 우리가 언약의 교회로서 은혜의 새 언약의 실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창 9:8-17.
 - B.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심판을 이 땅에 집행하실 때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상징한다—계 4:3, 겔 1:26-28.
 - C. 무지개의 삼원색은 파랑(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남보석 보좌의 색깔—겔 1:26, 시 89:14), 빨강(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룩하게 하는 불의 색깔—겔 1:4, 13, 27, 히 12:29), 노랑(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나는 금과 은의 합금의 색깔)이다—겔 1:4, 27, 히 1:3.
 - 1. 사람이 타락하여 죄악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의해 가로막혔다—창 3:24.
 -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전 1:30.
 - 3.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무지개로 상징된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리스도화’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신다—사 42:6, 히 8:10-12, 겔 36:26-27.
 - D.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가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의와 (우리가 혼 안에서 변화되도록) 거룩함과 (우리가 몸 안에서 변형되도록) 구속으로 우리 안에 전달하고 계신다—고전 1:30, 롬 8:10, 12:2, 8:23, 빌 3:21.
 - 1.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이다—엡 5:25.
 - 2.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이것이 생명 주

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이다—엡 5:26.

3. 그리스도는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것이다—엡 5:27.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서 전달되시어 우리를 삼일 하나님의 모든 어찌함을 지혜롭게 전시하는 그분의 유기적인 걸작품, 곧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시로 만드신다—고전 1:30, 엡 2:10, 3:9-11.
- E.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무지개 모양의 기초석들을 가진 성—계 21:19-20)인 우리는 무지개가 되어, 우리를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신 그분의 어찌함과 똑같이 만드시겠다는 그분의 새 언약을 수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할 것이다—계 21:10-11.
- F. 무지개는 더 이상 사망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성약이요 언약이다.
 1. 우리는 타락하여 멸망받기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다—애 3:22-23.
 2. 더 이상 사망이 없을 것이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확신과 평강을 가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 생명을 누린다—요 10:10하, 고후 5:4.
 3. 우리는 반드시 새 언약 아래 살아야 하며, 어떤 실패나 약함이나 어두움이나 부정적인 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며, 어떤 상황에서나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다—참조 롬 8:1, 고후 12:9, 딤후 1:10, 2:1, 유 24, 요일 1:9, 고전 1:9, 벧후 1:4.
- G. 이러한 무지개의 영적 실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나는 표현을 위해 거룩하게 하는 불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완전한 기회를 그분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임재로 우리를 채우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겔 1:5-14, 26-28.

III. 모든 교회 안에는, 지방 교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하나님의 의(하나님의 절차)라는 기반과 하나님의 거룩함(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과정과 하나님의 영광(하나님의 표현)이라는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 반드시 새 예루살렘을 살아 내어야 하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 반드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는 로마서의 계시이다.

- A.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성도들의 영화롭게 됨은 완결될 것이다—참조 고후 3:3, 6, 8-9.
- B.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대체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수 있기 위한 것이었다—요 19:34, 롬 1:17, 3:23-25, 5:18, 계 22:14.
 1.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체현, 곧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완결로 하는 구성체이다—시 89:14, 롬 5:18.
 2.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매일 이 사실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믿는 이가 타고난 방식으로 산다면 의롭지 못할 것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다면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모든 방식에서 의로울 것이다—갈 2:20.
 3.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만이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신성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온 존재 안으로 의롭게 분배하실 근거를 주어, 우리가 생명에

- 의해 삼킨바 되어 생명의 성이 되게 한다—롬 8:10, 6, 11, 고후 5:4.
4.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살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전혀 없고 육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만 죽고 장사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의의 길을 취하는 것이다—마 3:13-17, 21:32.
- C. 거룩하게 됨은 거룩함의 주관적인 활동이다. 그것은 행동하는 거룩함이다.
1. 거룩하게 됨은 ‘그 영, 그 거룩한’, 곧 우리의 영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며, 이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넣는 역사를 하시어 우리를 거룩한 성으로 만드신다—살전 1:5-6, 5:23, 롬 6:19, 22, 15:16, 8:4.
 2.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성화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자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히 2:10-11, 엡 1:4-5.
 3. 신성한 성화는 신성한 경륜, 곧 사람을 신화하여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인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유지선이다—엡 1:4-5, 계 21:2.
 4.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살고 섬기는 것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제사장으로서 구원받은 죄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롬 6:4, 7:6, 15:16.
- D. 삼일 하나님의 분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표현되시는 것이다—엡 3:20-21, 롬 8:19, 21, 28-30, 16:27.
1.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하나는 교회이다. 하나가 철저히 실현될 때 아들은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1, 21-23절.
 2. 이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는 곳마다, 그러한 교회 생활이 아버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3.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살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고전 10:31, 빌 1:20, 고후 4:5.
- E.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삼일 하나님을 분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의 견고한 기초와 거룩함의 순수한 조성 성분과 영광의 찬란한 표현으로서 가진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한 것이다—계 21:2, 9-11.
- F. 그리하여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이신 그 영과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교회인 신부가 결합하여 영원토록 한 실체, 곧 사랑하는 한 쌍이 된다—계 22:17상, 참조 고전 6:17.